

# 태이여기 관나루

제6호

한국독일사학회  
2003. 12.

# 목 차

## 논 문

고유경	문화비판으로서의 반더포겔 운동, 1896-1913 .....	1
이병린	동서독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동서독의 국가와 체제 .....	29
이용일	노동시장 중심의 독일 외국인정책의 지속성, 1873-2003 .....	59
이진일	사회적 기업정책으로서의 노동자교육 - 독일 기술연구소(Dinta)의 노동자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 .....	101
전진성	어떻게 부담스런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 - “과거극복(Vergangenheitsbewältigung)”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 .....	133

## 설 립

Jörn Rüsen	홀로코스트 기억과 독일인의 정체성 - 세대적 실천의 세 가지 형식 - .....	159
------------	---	-----

## 서 평

최성철	강성호 (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서울: 책세상, 2003), 175 pp. ....	173
-----	---	-----

독문초록 .....	181
------------	-----

휘 보 .....	193
-----------	-----

# Korean Journal of German Studies

vol. 6

December 2003

## CONTENTS

### Articles

- Yu-Kyoung Koh      The *Wandervogel*-Movement as  
a Critique of Culture, 1896-1913 ..... 1
- Byung-Lyun Yi      The Images of State and Society  
during the Division of Germany in the History  
Schooltextbooks of German Democratic Republic (DDR)  
and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RD) ..... 29
- Yong-Il Lee      Persistence of the job market-referered  
German Policy on Foreigners, 1873-2003 ..... 59
- Jin-Il Lee      Workers Education as a Socialpolitic  
of Company ..... 101
- Jin-Sung Chun      How to come to terms with the  
burdensome past? On the German Concept of the  
"Vergangenheitsbewältigung" ..... 133

### Historical Essay

- Jörn Rüsen      Holocaust-Memory and German Identity  
- Three Forms of Generational Practices - ..... 159

Book Review ..... 173

Abstracts ..... 181

Appendix ..... 193

## 설림

### 홀로코스트 기억과 독일인의 정체성

- 세대적 실천의 세 가지 형식 -

- 외른 뤼젠 (Jörn Rüsen)

- I. 홀로코스트의 파국과 독일인의 정체성
- II. 제 1단계: 홀로코스트의 은폐와 나치즘의 치외법권화
- III. 제 2 단계: 도덕적 비난
- IV. 제 3 단계: 홀로코스트의 역사화와 타자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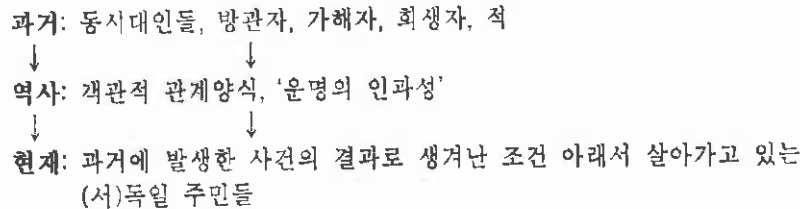
우리는 앞선 세대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의 과오와 고뇌뿐만 아니라 범죄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프리드리히 니체<sup>1)</sup>

#### I. 홀로코스트의 파국과 독일인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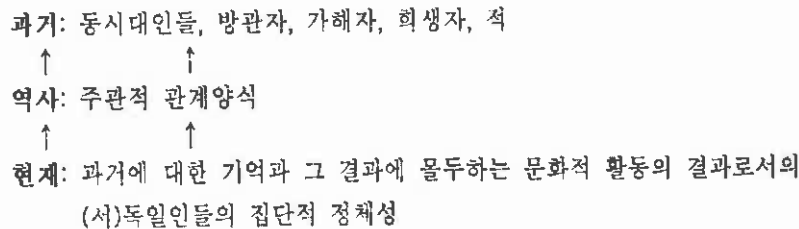
홀로코스트(Holocaust)는 하나의 파국을 통해 독일인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사건으로 주어져 있는 홀로코스트는 오늘날

1) Robert Leicht, "Nur das Hinsehen macht frei", *Die Zeit* (21. 12. 1986), p. 1에서 인용.

독일의 생활환경을 결정했던 과거의 중요 사건들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홀로코스트는 민족의 완전한 패망, 국가 대부분의 파괴, 독일의 정치적 분단, 국토의 손실과 그곳에 살던 주민들의 추방, 범죄와 수치와 공포와 탄압과 정신적 외상(trauma)과 책임이라는 정신적 부담으로 귀결된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미 주어진 여러 세대의 시간적 사슬은 이 사건을 현재 독일인들이 처해있는 내외의 생활환경과 연관지어주는 통로이다.



역사의식은 나치 시기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나치시기를 통과해서 하나의 다른 미래로 귀결되는 역사적 발전을 통해 작용하게 되어 있다. 역사의식은 조건을 부여하는 과거와 의도된 미래 사이의 간격을 넘어서, 숙명적 종속을 가치에 따른 수용이나 정체성의 정당성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전화과정에서 파국의 경험은 결정적인 사항으로 남는다. 의도의 차원에서 볼 때, 파국의 경험은 규범적 요소로 작용해서, 과거를 현재에 필요한 역사로 만드는 해석을 결정한다. 여기서 파국은 독일인들의 자의식과 집단적 정체성에 관한 생각과 타자에 대한 구별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논증의 서사적 흐름 속에서 결정적 사건들을 구조화하는 부정적 평가로 작용한다.



1945년 이후 독일인들이 자신들을 나치시기와 관련지었던 점에서 본다면, 홀로코스트가 언제나 나치시기의 결정적 사건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와는 정 반대로, 전후 독일인들의 역사의식 발전의 특징은 홀로코스트와의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의미는 오히려 증가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sup>2)</sup> 이 시간적 거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기억과 역사의식간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나치시기에 대한 기억이 역사의식의 특징들을 발전시켰던 전환과정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II. 제 1단계: 홀로코스트의 은폐와 나치즘의 치외법권화

나는 독일인들의 역사의식 및 역사의식과 관련된 집단적 정체성 개념이 발전해 온 윤곽을 나치시기와 홀로코스트의 파국적 특성에 따라 제시하려 한다. 나는 세 개의 주요 단계들을 구분하는 이념형적 방식으로 전후에 매우 복잡하게 발전해 온 독일인들의 정체성을 특징짓고 싶다. 이 세 개의 단계들이 시간적 연쇄과정 속에서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사실상 이 단계들은 공존하면서, 상이한 형세들과 혼합 상태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물론, 시간적 연쇄과정 속에서도 이 단계들은 어느 정도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나치시기의 범죄가 독일 내에 여전히 생존해 있던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은 물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심중에 남아 있었다. 나치시기의 범죄는 그것에 대항하여 정체성이 형성되는 반면교사적 사건으로서 중요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집단적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던 사건으로서 중요했다. 독일인들은 완전히 패망했다는 집단적 파국의 감정을 지닌 채 전후시대에 들어섰다. 이

2) Martin Broszat, *Nach Hitler. Der schwierige Umgang mit unserer Geschichte* (München 1988)를 참조하라.

과국은 또한 정체성의 균열로 여겨져,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성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전통적 민족주의에 속한 자긍심은 그것이 나치 시기에 행사했던 역할과 대면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독일인들은 정신적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 안에서 발생한 균열을 메움으로써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였다. 균열의 도전에 대해 제시된 답은 - 최소한 지식인들의 논쟁과 교육제도 수준에서는 - 민족적 전통의 해체였는데, 이것은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예컨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는 괴테를 독일인의 정체성을 혁신했던 역사적 인물로 치켜세웠다.<sup>3)</sup> 집단적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독일 역사 안에서 아주 오래된 사건들이나 역사적 인물들은 나치시기와 특히 홀로코스트를 지나면서도 살아 남았다. 홀로코스트는 '우리' 역사에 어울리는 역사적 요소가 아니었다. 만일 홀로코스트가 (무의식적 활동이 아닌 주의 깊은 정신적 활동의 수준에서)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어떤 역할이라도 맡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타자성(othersness)'을 지적하고 표현한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집단적 정체성의 위기는 홀로코스트 관련 범죄들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는 것 아니면, 그 기억을 공적 토론과 정치 활동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극복되었다. 새로운 서독 민주주의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이 성공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은 나치 체제에 부여했던 대부분의 엘리트들을 새로운 공화국에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이 통합은 정신적 차원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나치 체제의 거대한 덩을 다루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sup>4)</sup> 정체성 수습을 위한 정신적 전략 속에서 나치 시기의 위협적 측면들은 자기 자아의 한계를 넘어 가해자의 타자성 속으로 투사되었다.

3) Friedrich Meinecke, *Die deutsche Katastrophe* (Wiesbaden 1946) (in: Werke, vol. 8: *Autobiographische Schriften* (Stuttgart 1969), pp. 323-445.)

4) 이것은 헤르만 뤼베(Hermann Lübbe)의 유명한 테제이다. 그의 테제는 원래 엄청난 심정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폭넓게 수용되었다. "Der Nationalsozialismus im deutschen Nachkriegsbewußtsein", *Historische Zeitschrift*, Vol. 236 (1983), pp. 579-599.

나치스는 악마화되고, 독일 역사의 주요 흐름 너머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치외법권화(extraterritorialized) 되었다. 나치즘과 나치 독재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튀어나와 독일을 점령해버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치적 악한들의 침략으로 축소되었다.<sup>5)</sup> '평범한' 독일인들은 - 이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와 타협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 극악무도한 나치의 유혹에 희생당한 사람들로 특징지어졌다.<sup>6)</sup> 자기 닛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런 종류의 집단기억의 심리학적 전략은 정신분석학에서는 '전도(reversing)' 과정으로 묘사된다.

나중에 등장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개념은 이런 식의 치외법권화 작업을 강화시켰다. 냉전 기간동안에 '타자들'은 철의 장막 저편과 동일시될 수 있었고, 부담스런 나치즘의 경험은 공통의 적이었던 공산주의자들의 면전에 새겨 놓여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유죄라는 집단적 확신이 생겨날 수 있었다.<sup>7)</sup>

뒤에 와서 이 대중적 침묵과 치외법권화 전략은 정신적 실패인 동시에 독일 정신의 구조적 왜곡으로 비판받았다. 나치시기에 대한 새로운 도덕주의적 접근의 산물이었다는 이 비판이야말로 두 번째 시기의 특징이다. 미첼리히 부부(Alexander and Margarete Mitscherlich)의 『애도할 수 없는 독

5) 이런 치외법권화 작업의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전후 처음 열린 독일 사회학대회에서 레오폴트 폰 비제(Leopold von Wiese)가 행한 개막 연설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외부로부터 페스트가 음흉한 강도처럼 들이닥쳤다. 그것은 사회학자가 손댈 수 없는 형이상학적 비밀이었다." *Leopold von Wiese, "Die gegenwärtige Situation, soziologisch betrachtet", Verhandlungen des Achten Deutschen Soziologentages vom 19. bis 21. September 1946 in Frankfurt a. M. (Tübingen 1948), p. 29.*

6) 나치 시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다소 뒤늦게 등장한 사례는 크리스티안 헤렌도르퍼(Christian B. Herrendörfer)와 요아힘 페스트(Joachim Fest)가 1976년에 만든 영화 <히틀러 - 하나의 이력>(Hitler - eine Karriere)이다.

7) 이런 입장은 다시 나치 독재는 불세비즘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뿐이며, 홀로코스트는 '보다 근원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10월 혁명과 불세비키들의 범죄에 대한 응답이었을 뿐이라는 에른스트 놀테(Ernst Nolte)의 주장을 통해 제시되었다.

일인』<sup>8)</sup>을 통해 가장 탁월하게 표현된 이 비판은 제한된 정신적 생존 가능성과 역사적 연속성의 파괴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망각이 발휘하는 기능을 간과하였다.

물론 나치 시기를 가로질러 이 시기를 진정한 독일 역사와 결부시킴으로써 공식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연속성의 흐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공산주의 분파의 저항을 제외한다면) 히틀러에 대한 독일인들의 저항은 독일 역사에서 일어난 연속성의 파괴에서 벗어난 것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른 사례는 강제적으로 추방당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독일을 떠나지도 않았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나치시기에 자기 행위에 대해 승인을 요구했던 이른바 '침묵의 저항(silent opposition: innerer Widerstand)'이다. 그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 전통적 가치들이 부정당하고 파괴되던 시절에도 그 가치들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옹호하고자 하였다.

### III. 제 2 단계: 도덕적 비난

두 번째 단계는 부모세대와 갈등하면서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 개념을 수립해야만 했던 다음 세대 독일인들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들이 소유했던 집단적 정체성 개념은 두 개의 상충하는 의도를 가지고 홀로코스트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 번째 의도는 홀로코스트를 계속 유지해서 거기에서 독일인들의 집단기억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홀로코스트는 처음으로 독일인들의 역사적 자기이해라는 정신적 영역으로 귀결되는 하나의 역사적 시각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집단적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새로운 역할을 맡

8) Alexander und Margarete Mitscherlich, *Die Unfähigkeit zu trauern Grundlagen kollektiven Verhaltens* (München 1967). 재간행본은 Leipzig에서 1990년에 출간됨. (영역본은 *The Inability to Mourn. Principles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1975.))

은 것은 홀로코스트라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나치시기 일반이었다. 이제 홀로코스트는 독일인들이 정체성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 반면교사적 사건(counter-event)으로 활용되었다. 나치시기는 이와 같은 부정적 방식으로 독일사의 필수적 부분이 되었다.

새로운 세대는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화 과정 속에서 타당성을 획득하게 된 보편적인 정치문화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이 시기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비판을 제기하는 가운데 자긍심을 새웠다.<sup>9)</sup> 이와 같은 부정적 방식의 구성적 역할은 자기 동일시의 태도를 통해 나치시기와 대면함으로써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입증되고 실현되었다. 이것은 희생자들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아가 도덕적 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타자는 가해자와 방관자들이었다. 이제 타자성은 초역사적 지위를 상실한 채 독일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고, 새로운 독일은 이 타자성에 대항하는 것으로 자리잡았다.

홀로코스트를 독일 역사 속에 통합하는 작업이 집단적 정체성 개념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특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독일 역사는 필수적인 전통의 특징들을 상실하였다. 전통을 대체한 것은 보편주의적(universalistic) 가치와 규범들이었다. 이 보편주의는 독일인의 정체성을 재수립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sup>10)</sup> 보편주의는 나치 역사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 권위와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다. 독일인들의

9) 마틴 브로썬트(Martin Broszat)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접근할 때 생겨나는 정치적 결과들을 강조하였다: "자기 비판적 방식으로 오래된 역사와 근래의 역사를 취급함으로써" 서독 국민들은 "1950년대 후반 이후 서서히 발전해온 최고의 정치윤리 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다. (Hans-Ulrich Wehler, *Entsorgung der deutschen Vergangenheit: Ein polemischer Essay zum Historikerstreit* (München 1988), p. 103; "Historikerstreit", *Die Dokumentation der Kontroverse um die Einzigartigkeit der nationalsozialistischen Judenvernichtung. Texte von Augstein* (München 1987) (Serie Piper Aktuell), pp. 189-195.)

10) 이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이다. 역사학에서는 소위 빌레펠트(Bielefeld) 대학의 사회사학파가 이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자의식의 지평 안으로 들어온 보편주의는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반대편을 지지하는 한편, 자기 중심에 이르는 모든 역사적 관계를 초월하는 정신적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비판”은 독일 역사를 해석하는데 있어 본질적 태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타자성은 자기 자신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그 타자성은 (비판에 의해) 자기 영역으로부터 배제되는 방식으로 자기 민족의 과거에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식으로 (독일) 역사 안에서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것은 정체성 형성의 역사에서 홀로코스트를 제외법권화하는 것보다는 한 수 위의 방식이다. 이제 독일인들의 정체성은 서구의 근대 개념에 따라 보편주의적 가치에 근거를 둔 역사해석의 틀 안에서 홀로코스트를 해석함으로써, 홀로코스트 경험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홀로코스트의 파국적 특성 때문에 제기되는 한 가지 결정적 질문에는 아직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곧 홀로코스트가 서구문명의 가치체계를 부정한 결과 나타나게 된 재앙적 결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치체계의 타당성을 확증하는 역사적 사례로 기능한다면, 홀로코스트의 파국적 특성은 생략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정상화(normalized)'된 것은 아닌가? 라는 물음이다.

독일인의 정체성과 나치시기의 이런 관계는 메타 역사적인 규범 및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한 역사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모순을 통해 증재된 깨지기 쉬운 혼합물을 보여줄 뿐이지만, 아직도 많은 독일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깨지기 쉬운 혼합상태를 홀로코스트를 포함하여 나치의 과거 전체를 역사화 시킴으로써 극복하려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도된다.

#### IV. 제 3 단계: 홀로코스트의 역사화와 타자의 통합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새로운 형

태의 집단적 정체성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징후들이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독일인들의 정체성을 재수립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요소는 독일인들이 가해자들과의 가계적(genealogical) 관련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의 동일시를 수반하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이 가계적 관계를, 독일인들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적 요소들 바깥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었다. 세대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해 가는 거리로 인해 독일인들은 자기인식에 관한 역사적 시각 속에서 자신들과 부모 및 조부모 세대를 나누어 놓았던 정신적 간격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다른 사람들’은 독일 역사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그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구분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독일인들이었다. 이제 이런 중재작업을 통해 저명한 역사가들은 가해자들에 대해 ‘우리’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다.<sup>11)</sup>

11) 크리스티안 마이어(Christian Meier)는 그의 저서 『아우슈비츠 이후 40년. 오늘날 독일인의 역사적 기억』(40 Jahre nach Auschwitz. Deutsche Geschichtserinnerung heute, 2. ed. (München 1990)에서 정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독일사를 보는 시각에 홀로코스트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에 간행된 신판 서문에서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던 독일인들을 역사적인 ‘우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가설적 시도(p. 10)에 관해 언급하였다. 마이어 자신은 1997년 4월 11일에 발행된 일간지 『차이트』(Zeit), p. 48에 실린 글에서 베를린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가설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개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는 홀로코스트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의 범죄(unsere Verbrechen)”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Reinhart Koselleck, “Vier Minuten für die Ewigkeit”,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7. 1. 9). 이외에 언급할만한 관찰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독일인으로서 나는 불가피하게 가해자 편에 서있다. ... 내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느끼고 싶다면, 이 나라 사람들의 역사 속으로 나 자신을 편입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독일인들이 저질렀던 것에 책임을 느끼게 되고, 또 계속해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Thomas Auchter, “Jenseits des Versöhnungsprinzips. Die Grenzen des Erinnerns”, *Universitas*, Vol. 52 (1997), pp. 230-240, 인용은 p. 231.)



이 사실은 독일인의 정체성을 다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객관적으로 이미 주어진 가계상의 세대 사슬은 이제 독일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적 관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독일인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역사적 전환과정의 결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환과정에서 가해자와 방관자들은 독일적 특수성을 자기성찰에 필요한 거울로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역사적 경험의 한 구성부분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단계의 비(非)시간적인 도덕적 거리는 이제 매우 역사적인 거리로 바뀌었다. 홀로코스트는 독일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구성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건들의 연쇄 속에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이 '역사적' 장소에서 홀로코스트는 독일인들이 집단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믿는, 모든 타당성 있는 가치체계에 대한 반대상(反對像)으로서의 특징을 잃지는 않았다. 중요한 점은 이 타자가 이제는 자아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인들의 집단적 자아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의 상징적 질서와 관련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과거의 사건들을 자기 이해와 문화적 지향의 한 패턴으로 기능하는 시간적 질서 개념 속에서 정돈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일정한 정합성을 필요로 한다. 정합성은 정당화시키는 역할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가치들을 허락해준다.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홀로코스트는 한 민족의 특수성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능을 결코 담당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오늘날의 독일인들과 가해자들 사이에 가계적 연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연관이 현대 독일인들을 전적으로 가해자들과 결합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희생자와 일부의 적도 마찬가지로 독일인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에서 이 연관은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조차도 오늘날의 독일인들을 가해자의 후손으로 주장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강력하다. 이것은 독일 정치문화에 이미 깊이 뿌리내려 독일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분명히 모순된다. 가해자들이 공통의 '독일적인 것(Germanhood)'에 통합되어

있다면, 즉 가해자들이 독일인으로 인정된다면, 독일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독일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으로서의 부정적 사건(negative constituting event as an inclusive part of their own history)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홀로코스트의 타자를 포함시키려면,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의 논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민족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의 지평에서 부정적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집단적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구성하는 사건들의 시간적 사슬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홀로코스트를 포함한다. 이 부정적 의미는 철저히 긍정적 과거와의 동일시를 통해 구성될 수 있는, 누군가의 역사적 특성 속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일관성도 허락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역사적 특성은 조각나버리고, 다시 긴장과 모순으로 채워진다. 이 파편적 성격과 부정적 특성이 역사적 의미의 원리에 따라 개념화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지향점 제공과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문화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의미(sense)'<sup>12)</sup>란 말은 먼저 역사적 정체성에 내재해 있는 시간적 차원의 본질적 개방성과 근본적인 조절적 사고(regulative ideas)의 반사실적 타당성(contra-factual validity)을 뜻한다. 이것은 집단적 자아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선 바로 위에 올려놓는다. 여기서는 출생의 기원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거슬리는 것도 창조적 변화의 기회를 드러내주는 인간정신의 상상력 속에서 종식된다. 정체성은 -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간에

12) 이 원리에 대한 상세한 다루고 있는 것은 Jörn Rüsen, "Historische Sinnbildung durch Erzählen. Eine Argumentationsskizze zum narrativistischen Paradigma der Geschichtswissenschaft und der Geschichtsdidaktik im Blick auf nicht-narrative Faktoren",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Vol. 18 (1996), pp. 501-543; Jörn Rüsen, "Was heißt: Sinn der Geschichte? (mit einem Ausblick auf Vernunft und Widersinn)", Klaus E. Müller/Jörn Rüsen (ed.), *Historische Sinnbildung - Problemstellungen, Zeitkonzepte, Wahrnehmungshorizonte, Darstellungsstrategien* (Reinbeck 1997), pp. 17-47.

상관없이 - 언제나 과거의 자기 모습과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이 종합된 것이다. 이 긴장된 종합에 관해 보자면, 독일인들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살펴해보는데 있어서 홀로코스트가 발휘하는 구성적 힘은 미래에 대한 투사(a projection of a future)의 성격을 갖는 보완적 상(像)을 제공해주는 데 있다. 이것은 바로 아도르노가 '그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인간정신의 일반원리로 언급했던 홀로코스트의 절대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sup>13)</sup>

이 균열의 선 위에서 보면, 홀로코스트의 파국적 요소가 위기의 자격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는 역사적 정체성의 개념 속에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지금까지의 자기이해 기준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의 특성 안에서 위기와 정체성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기억 과정에서는 위기가 극복될 수 있었다. 우연적으로 발생한 불연속성과 균열은 역사의식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연관 속에서 새로운 의미 정합성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위기는 정체성 그 자체의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확신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과, 최소한 그 본질적 요소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생활양식의 영원성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특성 속에 내면화된 '비판적' 요소는 이 영원성과 정당성에 투사적 요소들, 곧 실천이성의 조절적 사고를 제공한다. 이 조절적 사고는 홀로코스트를 현재적인 것으로 유지하는 기억의 자극을 받아 항구적으로 생겨나고 추진된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은 역사의식으로 전화되어, 누군가의 자긍심을 불완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상대화시키고, 이 불완전성은 실천활동을 위한 기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관해서는 징후와 출발점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

13) Theodor W. Adorno, "Erziehung nach Auschwitz", *Stichworte. Kritische Modelle 2* (Frankfurt/M 1969), pp. 85-101, 인용은 p. 85.

므로 이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논리가 홀로코스트 기억에 의해 독일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홀로코스트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게될 것인가, 또 집단적 정체성의 개념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서 타자와 자아가 타자의 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체성 형성의 문화적 논리와 실천을 넘어서는 새로운 증재형식을 확보할 수 있게될 지 여부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또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하는 질문은 열려져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휴식 대신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은  
기억과 그 고통, 그리고  
비록 정신이 거세게 저항한다 해도  
인식은 오고야 말리라. - 아이스킬로스<sup>14)</sup>

(Jörn Rüsen, 독일 Kulturwissenschaftliches Institut 소장 겸 Witten-Herdecke 대학 교수)

(번역: 최호근, 부산교대, hchoi2002@hanmail.net)

14) Agamemmon, 177 sq.